

한국타이어, 하반기 경영부진 우려

우리투자증권, 3/4분기 영업이익률 8.5% ... 원료코스트 급등 극복 난항

우리투자증권은 8월10일 한국타이어에 대해 하반기에도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목표주가를 1만7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안수웅 애널리스트는 “아직도 대표적 원자재인 천연고무의 도입가격은 2200달러로 2005년 평균보다 무려 73% 높다”며 “재료비 부담으로 당분간 매출원가율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안수웅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더 부진할 전망”이라며 “3/4분기 영업이익률은 8.5%로 2/4분기보다 0.7%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타이어 수출 가격이 인상됐지만 당분간은 원자재 가격 급등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이어기업 주식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투자증권은 한국타이어의 2006년과 2007년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각각 18.9%, 25.9% 하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연 기자) <저작권재(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10>